

무위의 공동체*

문 태 운

< 국문요약 >

이미 주어진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자연의 공동체’와는 달리 글로벌리즘의 ‘선택적 공동체’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평등한 성원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 소위 ‘무위의 공동체’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확인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공성과 정치성을 획득해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무위의 공동체’에서 개개인이 사회적 협력의 공정한 조건을 규정하는 원리와 사회적 불평등에서 서로 관용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롤즈의 정치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한다. 글로벌화된 오늘날 그 어느 사회에 이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롤즈의 이론이 무위의 공동체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고 정당화하는데 필요한 이념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서술하고자 한다.

[주제어] 무위, 관용, 공동체 폭력, 자유주의, 존 롤즈

Community of Non-action or Non-Doing

Moon, Tae-woon

< Abstract >

Unlike in the “national community” which is established preconditionally, the constituents of the “selective community” of globalism are trying to live as free and equal members. As members of the so-called “community of *non-action*” or of “*non-doing*” they come to acquire social equity and “politicalness” by freely choosing and affirming their own lives. This article uses John Rawls’ political theory to describe the principles by which individuals can determine the conditions of their social cooperation and the political compromises through which they can tolerate social inequalities. Because no society in today’s globalized world can be free from this problem, this article is intended to describe whether Rawls’ theory can offer a methodology to deduce and justify the principles of justice necessary for the community of *non-action* or *non-doing*.

[Keywords] Non-action or non-doing, tolerance, community violence, liberalism, John Rawls

* 문태운(Moon, Tae-woon, E-Mail: twmoon@kookmin.ac.kr)

학위취득대학: 프라이부르크대학 현직: 국민대학교 교수

Received: Jan. 15. 2015 Revised: Jan. 17. 2015 Accepted: Feb. 15. 2015

I. 서론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간존재는 온전한 실체를 이루기 위해 역설적으로 타자와 합일할 수 없는 ‘무위(無爲)의 공동체’에 살아가고 있다. 무위의 공동체에서는 이론적으로 개인들 사이에는 상이한 사회·경제적 위상으로 편위(偏位, clinamen)가 존재한다. ‘공동’의 본래적 의미가 같이 하는 것’ 이라면 그 의미는 절대전능의 힘과 유일함만이 통용되는 공간임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도 서로 다른 존재들이 서로 간격을 두고 서로 다른 존재와 어울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사르트르나 카뮈와 같은 실존주의자에 의하면 삶에는 어떠한 고정된 의미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때때로 선택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 이때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되며 우리는 이를 ‘무위의 공동체’¹⁾에서 리버럴리즘의 문제로 인식한다.

출생이라고 하는 우연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연의 공동체와는 달리 무연의 사람들에 의하여 인공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다수의 중심을 가진 다초점의 사회에서 복수의 가치관과 문화가 사회의 모체가 되고 있다. 무연의 재조직화와 새로운 공공권의 형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무위란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지만 그 고유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무위의 공동체는 유토피아적 이념형으로서 현존하는 실체적 구성물만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글로벌적 다문화사회에

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다수의 중심을 가진 다초점화 되어가고 있고 복수의 가치관과 문화가 사회의 원리로 되어가고 있다. 무연의 재조직화와 새로운 공공권의 형성이라는 대안 사회가 부상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무연화(無緣化, déraciné)하여 사인(私人)이 공공성(公共性)과 정치성(政治性)을 획득하여 간다.

본고에서는 무위의 공동체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성원으로서는 개개인이 사회적 협력의 공정한 조건을 규정하는 원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공동체내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생기는 요인으로는 이를 테면 소득이나 부, 효용을 위한 자원, 자유와 권리 등의 함수관계이다. 불평등의 기준이 되는 이들 변수의 다양함과 그 선택의 결과를 관용할 수 있는 사회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서술하고자 한다.

사회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하여 「무지」하며 판단정지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 롤즈의 정치이론의 핵심이다. 당연히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여기에서는 배경이 되고 있다. 다인종 사회이며, 인종차별이 없고 그 인종의 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피부의 색이나 성별에 의한 영향을 정의의 원리의 선택에서 배제하여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롤즈의 정의론은 미국의 특수사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화된 오늘날 그 어느 사회도 이러한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롤즈의 이론을 보편적 원리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위에서 제시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롤즈의 「원초상태」와 「무지의 베일」에서 무위의 공동체의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고 정당화하는데 필요한 근본 이념들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서술하고자 한다.

1) ‘무위의 공동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모리스 블랑쇼와 장 퉁 낭시의 『밝힐 수 없는 공동체 마주한 공동체』와 장 퉁 낭시의 『무위의 공동체』 참조.

II. 무위의 공동체 속성과 폭력의 개연성

1. 무위의 공동체 속성

우리가 무위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지시하고자 하는 것은 땅, 피, 인종에 의해 하나의 사실로서 주어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선택적 공동체라 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간과 인간에 대한 관계가 대등한 사람들간의 관계가 아니라 편위화된 타자와의 관계가 성립 될 때 그와 같은 공동체는 발생한다. 즉 공동체는 이와 같은 고유의 내재성으로 하여 자연적 공동체를 거부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 공동체의 부재를 야기시키는지도 모른다(블랑쇼 2006, 67)²⁾. 공동체는 존재의 근거로서 유한성을 제시한다(블랑쇼 2006, 26). 이러한 공동체의 불가능성은 롤즈의 정의론에서 새로운 공동선을 구성하기 위한 「무지의 베일」은 공동체의 불가능성과 무위의 공동체에서의 현주소를 시사하고 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로 평등한 자유의 권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어느 곳에도 치우침이 없는 경계선에 서서 공동체의 원리를 바라보는 정치 철학이다.

인간 존재는 존재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때로 자신을 부인하기도 하는 타자를 향해 나아간다. 그 결과 인간 존재는 자신이 될 수 없다는, 즉 자기 또는 분리된 개인으로 존속할 수 없다는 불가능성을 의식하게 만드는 상실의 체험 속에서만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존재는 자신을 항상 미리 주어진 외재성으로, 여기저기 갈라진 실

존으로 체험하게 된다. 그러면서 인간 존재는 과격하지만 은밀하고 조용한 끝없는 자신의 와해와 다르지 않은 자신의 구성 가운데 아마 실존을 경험하게 된다(블랑쇼 2006, 18).

인간 존재는 어떤 결핍의 원리에 의해 어떤 공동체를 원한다(블랑쇼 2006, 17). 그 공동체는 자신을 조직한 인간 존재들의 유한성으로 유한한 공동체이기 마련이다.

만약 ‘공동체’의 일이 개인의 목적보다 더 우월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면, 공동체와 같은 목적을 가진 개인들만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간주될 것이다. 한 개인의 존엄성은 인간의 권리에서가 아니라 이 구성원이란 사실에서만 도출될 수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집단주의가 특정화되고 배타적이 되도록 하는 경향을 강화시킨다. 여기에는 자신을 집단과 동일시하려는 개인의 정신적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아주 흔하며, 그래서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비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우월성을 부여해 줄 때에만 그의 욕구가 충족될 것이다. 니부르(Niebuhr)의 <도덕적 인간과 부도덕한 사회,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는 제목에서 시사하듯이 현대인들 자신의 악덕들을 점점 더 큰 집단에다 위임해 버리기 때문에 스스로는 윤리적이라고 상상하는 경향이 점점증하는 경향이 있다(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2006, 211-213).

한 집단을 대신해 행동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집단 속에 있는 개인으로서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수많은 도덕적 제약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2006, 213).

2. 공동체의 폭력

에드워드 P. 톰프슨은 이 공동체의 폭력을 러프 뮤직이라고 하는 실로 매력적인 논문 속

2) 공동체와 무위의 관계에 대하여 같은 책 pp. 25-35 참조.

에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문화 인류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샤리바리(Charivari)라고 하는 단어가 더 익숙할런지 모르겠다.

토프슨에 의하면 Rough music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어떤 종류의 규범에 위반한 사람들에 대하여 의식화(儀式化)한 행동으로 행해지는 적대 행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는 용어이다.

러프 뮤직은 지방에 따라 가지 각각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공격하는 집 주위를 소란스럽게 마구 뛰어 다니면서 공격 대상의 신체의 대신이 되는 사물이나 인형을 태우기를 하는 것은 동일하게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공동체로부터의 공격의 계기로 되는 것은 극히 사적인 일이었다. 토프슨은 러프 뮤직, 샤리바리(Charivari)라고 하는 형태는 사적인 것을 공적인 차원에 끌어내어 공동체가 대신하여 재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적인 영역의 자유가 허용되어지지 않고 공적인 세계로 인출되어 공동체의 조소와 비난, 폭력을 당하는 의식(儀式)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한 러프 뮤직 세계 가운데에서 존스튜어트 밀이 타인의 권리, 신체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신체와 어떻게 관련시키며 또한 어떠한 사상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다라고 선언한 것은 인류에 대한 대단히 용기 있는 진술이다. 더구나 벤덤의 가장 말년의 제자이며 대단히 무미건조한 『증거법론』의 강대한 수고(手稿)를 정리하여 편집한 것은 제임스 밀이었다. 여기에서 고찰해 왔던 러프 뮤직과 동성애,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原則)(사적인 일에 있어서 자기 결정의 원칙)은 우리들에게 100가지의 원칙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도록 해주고 있다. 공동체가 자신의 일체감을 확인하는 것

은 확실히 사적인 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적인 차원으로 끌어내어 조소하고 희롱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할 때이다. 공동체의 습성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공적인 일로 된다면 공동체의 자조를 받아 들일 때에도 그곳에도 공동체의 분열이 존재한다. 소수파와 다수파가 있으며 서로 대등한 관계 속의 대립이던가 공적 차원에서의 투쟁은 공동체의 일체감을 저해한다.

스케이프고트(Scapegoat, 속죄양)의 현상이 여기에 생겨난다. 전원이 돌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인간을 죽인다. 그 한 사람의 인간을 부정하는 일에서 사람들은 일체감과 자신들의 모럴(moral)을 확인 한다. 더욱이 山口昌男가 그의 저서 『지의 원근법(知の遠近法)』에서 기존의 학문의 틀을 넘어서 문화의 심층을 독해하여 문화에 학문적 활력을 넣어주는 이론을 구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문화의 기호론을 중핵(中核)으로 하여 역사학, 문화 인류학, 철학, 정신의학 등의 분야를 넘나들면서 영화, 문학, 만화의 소재를 참신하게 분석하여 매스 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견지(見地)를 제공하고 있다. 즉, 현대의 미디어에 의해서 사적인 일상의 스캔들이 되어 극적으로 구성된다면 여기에 우리 사회 욕망 그 자체가 나타나게 되고 있다. 사회의 욕망이야 말로 러프 뮤직의 가운데에 그 전형이 있는 것처럼 그 대상이 되는 희생양을 구하려는 욕망이 꿈틀거린다

IV. 롤즈(Rawls)의 리버럴리즘

1. 적극적·소극적 자유

로크가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공

적인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세계가 있다고 할 때 거기에 프라이버시의 세계가 열린다. 사적인 세계이다. 존 로크의 관용론은 여기에서는 종교상의 관용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누구도 관여 할 수 없는 사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에 의한 개인의 자립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이론적으로 확립한 것이다. 롤즈는 이 문제에는 그다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사적 세계의 자립은 보통 흔히 말하면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의 이분법 내에서 후자의 소극적 자유의 문제이다.

존 스튜어트 밀에 있어서 소극적 자유의 문제를 다루면서 정의의 원리의 확장을 하여 보자. 자유의 개념은 단순히 ‘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즉, ‘~로부터의 자유’를 가리키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적극적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에 대한 자유’를 가리키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로 나눌 수 있다.

근대에 있어서의 자유의 개념은,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가 아니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위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이 자유 개념이 봉건시대의 불평등한 신분제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사상을 이끌어 유럽에서 시민혁명을 일으켰다.

자유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유와 충돌하기 쉽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속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제멋대로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넓게 지지를 받고 있다.

밀의 자유의 원리는 일상의 언어로 말하자면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기준과 방식 가운데에서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누구도 미혹을 당하지 않을 경우 그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결정

하는 권리가 있다. 이것이 자기 결정의 자유이다. 내가 상대방의 세계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상대방도 나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바란다.

밀의 자유의 원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은 「소극적」인 일에 나타나지만 실은 상당히 「적극적」인 자유의 주장이다. 사회의 모델과는 다른 사적 모델이 존재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이 사적 모델은 사회의 가치의 기준과는 다르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 이외의 사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그 모델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이다. 현재의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도 성적으로 소수자의 문제는 다양한 국면에서 일어나고 있다. 원초 상태와 무지의 베일의 이론으로 말하자면 성적(性的)으로 소수자라고 해서 평등한 자유에의 권리를 침해 당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그것이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그것을 사적인 모델과 취미의 문제로서 그 자신의 결정에 맡기고 그것에 관섭해서는 안 된다.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 개인이든 집단이든 —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self-protection)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정치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속에서, 개인이 향유하는 상대적인 자유는 시간과 인식의 한계 안에 머무는 것으로, 그러한 개별적인 자유는 반드시 충돌과 폭력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자유는 인식과 의식을 넘어서 존재하는 행위의 출발이지, 인

식의 결과나 목적으로 나중에 달성되는 시간의 산물이 아니라고 하였다.”

사적 세계의 내에서의 자기 결정의 권리를 확립한 것은 로크라고 하는 사상가를 이해한다는 학문적 의미에 머무르지 않는 역사적 사건이다. 원래 모럴(moral)은 공적인 것이며 공동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사적인 모럴의 차원을 열어가고 있다. 사적 세계에 있어서 인간이 하는 일에 공적 권력은 개입할 수는 없다. 그런데 실체는 이 사적 세계와 공적 세계와의 분리는 결코 간단하게 이루어진 않는다. 오늘날 우리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적인 모럴(moral)도 바로 최근에 확립된 것이다.

2. 롤즈의 자유 개념

롤즈는 1993년에 출판된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다음과 같이 주제를 설정하고 있다. 서로 다른 이해와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상이한 종교적, 철학적, 또는 도덕적 교의에 의해 분열된 경우, 지속적인 안정과 정의가 유지되는 사회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그 해결책으로서 그는 중첩적 합의 (overlapping consensus)³⁾ 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적 관념을 만들어 내고 있다. 사회가 경직되어 특정의 종교나 종교적 이데올로기 그 자체를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겨날 때 그 사회는 종교만이 아니라 다른 이질적인 것도 사회로부터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동질한 사회를 추구한다는 것은 말 할 것도 없이 리버럴리즘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롤즈는 「원초상태」나 「무지의 베일」이

라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자유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⁴⁾. 그의 이론의 핵심은 원초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어떠한 종교, 사상이나 신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의의 원리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의 종교, 사상, 신조로 하여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고 처벌되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원초상태」를 기반으로 우리들은 사회가 종교, 사상, 신조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어 유지해 나아가는 것을 본다.

롤즈는 더욱이 사상의 내용이나, 종교의 내용에 따라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만약 종교의 내용에 따라 자유가 제한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자신들의 사회를 하나의 도그마에 의해 지배되는 종교국가로 만들 것이다. 자유는 자유의 이름 아래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롤즈의 주장이다.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그 종교가 사회에 있어서 존속의 조건을 침해할 때이다. 자기가 어떠한 종교를 신봉하는가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베일」 하에서는 사람들은 무신론의 존재를 인정하며 다른 종교의 자유를 승인하여 다신론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신봉하는 종교가 변하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롤즈의 「원초상태」 아래에서는 어떠한 종교 국가도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도 그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며 복수의 가치, 복수의 종교 혹은 무신론자도 생겨 날 수 있는 것이 롤즈의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의 권리로서 서로 인정한다는 것을 「원초상태」에서 계약하는 것이다. 국가는 이 자유의 조건을 보증하는 존재이며 그 자체가 어떠한 종교 혹은 사상을 추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은 여기에서 롤즈의 국가론에 대

3) 중첩적 합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존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pp. 165-213 참조.

4) 정의의 두 원칙은 롤즈의 『사회정의론』 pp. 81-103. 참조.

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국가란 다양한 가치나 사상을 가진 자들의 연합체이다. 국가야 말로 이 자유의 연합체의 보증인에 불가하다. 종교국가가 거기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민족에의 충성을 요구하는 민족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 다민족 국가나 다인종 국가에 있어서 하나의 인권에의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의 조건을 침해하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평등한 자유에의 권리는 침해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과격한 자유주의자처럼 무정부주의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존재한다. 다만 그 정부는 자유의 조건을 보증하는 존재로서 그 자체가 어떠한 사상 종교를 주장하는 존재는 아니다.

그렇게 되면 롤즈의 테마는 유럽의 전통적인 테마인 관용의 문제에 다다르게 된다. 「원초상태」와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사람들은 종교나 사상에 있어서 서로 다른 입장 사이에도 관용이라고 하는 물을 선택하게 된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겠다.”는 이 한마디에는 볼테르가 평생 견지한 관용⁵⁾에 대한 견해가 잘 요약되어 있다(볼테르 2001, 14).

“여기에 소개한 『관용론』은 볼테르가 치열하게 전개해온 사상의 한 정점을 보여주는 역작으로서, 그 핵심은 인간정신의 자유에 대한 옹호이다. 종교적 편견과 맹신에 저항해서 인도주의의 이름으로 관용을 호소하는 이 책은 1762년에 일어난 칼라스 사건을 계기로 씌어졌다. 이 작품을 쓴 당시는 계몽주의 철학자들

과 옛 체제의 낡은 가치가 가장 치열하게 겨루고 있을 때였다”(볼테르 2001, 14).

“칼라스 사건의 재심과 무죄판결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억압해온 옛 체제의 낡은 권위에 대한 정의의 승리이자 야만적 형벌제도에 대한 계몽의 승리라고 할 수 있었다”(볼테르 2001, 16).

“어떤 이들은 자비나 관용, 그리고 신앙의 자유란 가증스러운 것들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반문하건대 자비나 관용, 신앙의 자유가 그 같은 재앙을 초래한 적이 과연 있었던가”(볼테르 2001, 17).

“종교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고 죽은 후에도 행복해지기 위해 만들어졌다. 내세에 행복한 삶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현세의 삶을, 우리 인간의 비뚤어진 본성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행복하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관용을 알고 베풀 줄 알아야 한다”(볼테르 2001, 18).

“관용(tolerantia)이란 소극적 인정과 방임을 넘어 다른 종류의 사고방식과 행위양식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승인하는 태도로서 그가 『관용론』에서 다루고 있듯이 관용이란 1차적으로 종교적인 관용을 의미한다”(볼테르 2001, 21).

“이렇게 볼 때 종교가 다르다고 서로가 서로를 박해하는 법이란 어리석고 잔인한 것이다. 이것은 호랑이 따위의 맹수들에게나 어울릴 만한 법이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끔찍하다. 왜냐하면 호랑이들은 먹을 것을 다룰 때만 서로를 물어뜯지만, 우리 인간은 말 몇 마디 때문에 서로를 죽여왔던 것이다”(볼테르 2001, 76).

이러한 볼테르의 말은 오늘도 아마 유용하다. 복수의 사상과 가치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

5) 관용(tolerantia)이란 소극적 인정과 방임을 넘어 다른 종류의 사고방식과 행위양식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승인하는 태도로서 볼테르가 『관용론』에서 다루고 있듯이 관용이란 1차적으로 종교적인 관용을 의미한다(볼테르 2001, 14).

은 자신의 사상과 가치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과 똑 같은 것이다. 볼테르의 언어가 시사하고 있듯이 타자의 모습은 자신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고 타자의 자유는 자신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다. 롤즈는 이러한 점에서 전통적인 자유주의를 따르고 있다. 그곳에는 전통도 이단도 존재할 수 없다. 애당초 전통이라는 개념이 자유로운 사회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족과 종교의 문제는 실제로는 이와 같은 자유의 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어느 쪽이든 상대방의 존속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절대적 대립에서 사회는 붕괴된다. 영국에 있어서 아일랜드의 문제나 보스니아의 민족전쟁이 그 전형일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종교 전쟁도 민족 전쟁도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간의 대립만이 원인인 것은 아니다. 보다 복잡한 세계의 상황 아래에서 이들 대립이 돌출되고 있다. 그곳에서 롤즈의 『정의론』을 들이댄다 해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정숙한 하나만의 관용에의 호소만이 통용 될 뿐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확립하지 않는다면 세계는 종교의 대립과 민족의 전쟁에 의해 붕괴한다. 그것을 억제하는 수단이 냉전 시대의 힘의 균형이라 한다면 이것만큼 아이러니는 없다.

아무튼 롤즈는 국제 세계라고 하는 차원에도 「원초상태」와 「무지의 베일」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의 빈곤에 대하여 풍요로운 국가는 책임이 있다고 한다든지 기아와 에이즈에 고통 받고 있는 국가 있다면 그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무가 다른 나라에도 있다(아마티안 쉐 2001). 평등한 자유의 권리는 누구에게도 보증되어 있다. 그러한 나라의 상태가 되는가의 여부는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어떠한 나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능성은 현실의 문제에 의하여 불

러 일으켜질 뿐이다.

한 공간의 평등이 다른 공간의 불평등⁶⁾과 양립할 수 있는 개연성은 사실상 ‘인간의 다양성’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유주의적 권리의 평등을 요구되면 우리는 후생수준의 평등이나 기타 이런 ‘정형화’를 요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만일 균등한 권리를 이와 같이 받아들이면 결국 소득, 효용, 후생 그리고 적극적 자유 측면에서 온갖 불평등의 결과도 수용해야 한다(셸 1999, 49).

현대의 리버럴리즘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한 삶의 구상’이 화해 불가능할 정도로 다원적으로 보면서도,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그리는 ‘삶의 계획’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그 이유는 기실 그들의 기본적 자유의 향유가 불안정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사료된다(셸 1999, 135-140).

‘기본적 자유의 보장은 다원적인 가치 추구를 촉진한다’라는 롤즈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막대한 사회적 자원을 필요로 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 자원을 생산하기 위해 각각 자기 가치에 따른 삶의 자유 - 비공약적 차원의 다원적인 자유- 를 제약 받지 않겠느냐는 반론이 그것이다. 물론 사회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두 가지 차원의 자유가 서로 경합할 것이고, 또 기본적 자유를 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자원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필요’를 위해 ‘능력’을 소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 검토할 수는 없지만 글로벌한 사회를 자원의 재분배 단위(unit)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어도 롤즈가 제기하는 ‘원조의 의

6)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요인에 관하여는 아마르티아 쉐의 『불평등의 재검토』 p. 48 참조.

무(duty of assistance)- 정치적, 문화적 또는 물적, 인정 자원 등의 부족으로 인해 불리한 여건에 처한 사회로 한정된 자원을 이전하는 것 - 는 정당화될 수 있고, 또 모든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좀 더 중요하다고 해석된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위해 그 자원을 이전할 수는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획득 가능한 사회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타자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다원적 자유를 향유하는 데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다. 첫째, 아무리 운택한 자원을 갖고 있더라도 개개인이 실현할 수 있는 가치(향유할 수 있는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둘째,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을 타자는 이룰 수 있다 - 우리의 자유에는 상보성이 있다 - 는 것이 그 주된 이유다. 다시 언급하겠지만, 우리는 자기의 자유를 향유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실현하지 못한 가치가 타자에 의해 실현되기를 바라기도 하는 것이다(셸 1999, 138).

롤즈의 『정의론』은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선택되어 다신론과 무신론의 공존 상태라고 하는 관용을 지지하면서 나아가 불 관용한 종교에 대하여 사회가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여기에 우리 문제에 이르게 된다. 조금 전에 서술한 바와도 같이 롤즈의 「원초상태」에 입각하여 정의의 문제를 선택해간다면 본래적으로 그것에서 도출 되는 결론은 다원주의, 다수주의 또는 다신론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복수의 서로 다른 사상, 신조, 신념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신조, 사상, 신념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 이 불 관용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 인가.

아마 민주 사회의 가장 곤란한 문제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애당초 종교는 자신의 신을

유일하고 절대적 것으로 할 때 가장 강력한 기반을 형성한다. 역사상 지극히 참혹한 종교 전쟁의 경험을 겪은 것을 통해 그들은 관용에 이른 것으로 우리들은 결코 자신의 신의 절대성을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의의 원리 아래서의 우리는 이 종교의 내용에 관심이 없다. 어떠한 간에 종교도 그 사회 가운데에 존속하는 것에 인정받는다. 만약 그것에 불 관용의 집단이나 개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정의의 원리의 부정자인 것이다. 당연히 우리들은 그 들에 대하여 종교의 교의의 내용에 개입은 하지 않지만 이 사회의 정의의 원리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존재가 인정 받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의 존재도 인정 되는 것이 요구된다. 롤즈는 이 점에 관하여 극히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자신들이 허용되어 있다는 것은 불 관용한 자들은 관용하는 것으로 이끌어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그들도 관용적인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롤즈 자신의 낙관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롤즈는 한편으로 그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들의 자유와 자유 조건 그 자체가 위협에 처해져 있을 때는 그 위협을 가져다 준 불 관용한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 하다. 애초에 정의의 원리가 그렇게 하여 불 관용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현실에서 자유의 조건을 침해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평등한 자유에의 권리를 사회의 제 1원리로 한 사회에서는 불관용적인 사람들에 대하여 확실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초상태」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자신의 존재를 보증하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하게 될 때까지 관용의 원리에 따를 수 없다. 그러나 롤즈는 그것을 말하기 위하여 상당히 섬세한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그 섬세한 조건은 현실 앞에서 유효하지 않는지 의문스럽기는 하나 우리가 자유의 원리에 입각한 이상에 그 섬세한 조건을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다(롤즈 1985, 170).

우리들은 사상, 신조, 종교가 다른 것에 따라 그 사람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선택에 조건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원칙은 아무리 불 관용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은 평등한 자유의 원리 아래에서 불 관용한 인간의 존재도 인정 함으로서 불 관용한 자아 자신이 그 정의의 원리를 승인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한다. 즉, 어디까지 불 관용한 자를 부정하는 가는 결국 자유의 조건, 자기 보전의 권리가 어디까지 있다면 위협에 처하게 되는 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결단하는 것은 할 수 없다(롤즈 1985, 170).

롤즈(1971)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 못한 분배가 이익이 되지 않는 한, 기초재분배의 평등을 요구한다. 그러나 기초재는 특히 기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모든 사회적 원칙들 - 자유, 기회, 소득과 부, 자기존중기반 - 은 이 중 일부나 전체의 불균등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롤즈 1985, 83).

롤즈는 자신의 두번째 정의원칙에서 효율성 요구를 고려해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에 모든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극단주위를 고집함으로써 자신의 효율성 고려사항이 지닌 유용성을 다소 제한했다.

롤즈의 최소 극대화 정식에 대한 요구는 기초재 보유형태로 개인별 우위를 설명할 때 좀더 쉽게 충족되는데, 이런 설명은 능력공간에서 쉽게 눈에 띄는 불평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V. 결론

오늘날 세계는 그 어느 때 보다 인접하여 상호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 모두가 중심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접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가치와 전통을 가진 이웃들과 지속적으로 조정과 혼합을 시도 하고 있다.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다수의 중심을 가진 다초점 사회에서 서로 다른 이해와 권리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상호성을 기반으로 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가 생겨난다. 그것은 반드시 유일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만의 협동이 아니라 복수의 가치의 혼합 속에서 생겨난 협력과 승인 관계이다.

롤즈의 『정의론』에 나타나 있는 「원초 상태」와 「무지의 베일」은 정확하게 정의의 문제를 넌에센스(non-essentialism)에 상궤(常軌)로부터 자유로운 부재와 무위의 공동체를 맞이하고 있다. 에센스(essence)라고 하는 것은 전통, 민족, 토착, 인종이라는 요소로 구성된 문화를 말한다. 그러나 에센스만을 가지고 현재의 문화를 확립할 수 없다. 어쩌면 이러한 에센스가 무구한 채 존재할 수 없을 때에 현재의 글로벌 문화는 생겨난다. 인문학에서 이러한 영역에 대하여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초월하여 풍부한 시와 이미지로 충만하고 있다. 우리들은 다만 여기에서 『정의론』이라고 하는 비 시적 영역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봤다.

공동체의 불가능성에서 이제 Liberalism이란 대체 어떠한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형태를 우리들은 liberalism의 중심

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며, 이는 분명 정확하다. 그러나 그 정확함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들의 사회들 내에서 민족이나 전통, 인종과 같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단단한 덩어리가 된 가치를 중심에 두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수의 행성으로부터 천체가 형성 되어 있고 그 행성을 이어서 성좌(星座)가 된다. 다만 그 성좌는 원근에 따라 우리가 조립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들의 정치 사회도 그와 같이 단일의 가치와 단일의 공동체가 아니다. 다수의 가치와 다수의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 어느 것도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공동체의 구성원의 관계는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일 없이 상호의 관계를 속에서 조정하는 기준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처음부터 공동체의 내부에도 하나의 가치로 통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Korean References)

- 루소페인 저. 이가형 역. 1994. 『사회 계약론 상식·인권론』. 서울: 을유문화사.
- 마르틴 하이데거 저. 이기상 역. 1998. 『존재와 시간』. 서울: 까치.
- 마이클 샌델 저. 이창신 역. 2010.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 김영사.
- 미셸 푸코 저. 이규현 역. 1990. 『성의역사 I, 앞의의지』. 서울: 나남출판.
- 벤 에저 저. 박재주 역. 1987. 『현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이해』. 서울: 청하.
- 볼테르 저. 송기형·임미경 역. 2001. 『관용론』. 서울: 한길사.
- 사이토 준이치·김수영·송미정 저. 이혜진 역. 2011. 『자유란 무엇인가: 벌린, 아렌트, 푸코의 자유 개념을 넘어』. 서울: 한울아카데미
- 아마티아 센 저. 박우희 역. 2011. 『자유로서의 발전』. 서울: 세종서적.
- 아마티아 센 저. 이상호·이덕재 역. 1999. 『불평등의 재검토』. 서울: 한울아카데미.
- 에리히 프롬 저. 김석희 역. 2012. 『자유로부터의 도피』. 서울: 휴머니스트.
- 울리히 벡 저. 홍성대 역. 2006.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
- 유선영·이강형. 2008. 『저신뢰 위험사회의 한국언론』. 서울: 한국언론재단.
- 이샤야 벌린 저. 박동천 역. 2006. 『이샤야 벌린의 자유론』. 서울: 아카넷.
- 정달현. 2007. 『로크의 정치 철학』.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 제러미 벤담 저. 고정식 역. 2011. 『도덕과 입법의 원리서설』. 파주: 나남.
- 존 로크 저. 강정인·문지영 역. 1996. 『통치론: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서울: 까치글방.
- 존 로크 저. 공진성 역. 2008. 『관용에 관한 편지』. 서울: 책세상.
- 존 로크 저. 남경대 역. 2012. 『시민 정부』. 파주: 효형출판.
- 존 롤즈 저. 황경식 역. 1985. 『사회정의론』. 서울: 서광사.
- 카를 만하임 저. 임석진 역. 1991.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서울: 청아출판사.
- 칼 포퍼 저. 이명현 역. 1982. 『열린사회와 그 적들 II』. 서울: 민음사.
- 케니스 H. 터커 저. 김용규·박형식 역. 1999. 『앤서니 기든스파 현대사회이론』. 서울: 일신사.
-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저. 김이석 역. 2006. 『노예의 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진실』. 파주: 나남출판.
- 하상복. 2006. 『세계화의 두 얼굴 부르디외& 기든스』. 서울: 김영사.
- 한국 철학사상 연구회. 1992. 『현대 사회와 마르크스주의 철학』. 서울: 동녘
- 한스 마이어·호르스트 텐처 저. 주광순 역. 2008. 『정치사상의 거장들 1-고대·중세편: 플라톤에서 홉스까지』. 서울: 시와 진실.
- 홍성대. 2000. 『위험사회를 넘어서』. 서울: 새길출판사.
- 홍윤기·이정원. 1982. 『하버마스의 이론과 실천』. 서울: 종로서적.

참고문헌(English References)

- Arendt, Hannah. 1970. *On Violence*. New York: A Harvest Book harcourt, Inc.: 한나 아렌트 저. 김정환 역. 1999. 『폭력의 세기』. 서울: 도서출판 이후.
- Drucker, Peter. 1993. *Post Capitalist Society*. N.Y.: Peter F. Drucker: 피터 드루커 저. 이재규 역. 2002,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Locke, John. 1979.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N.Y.: Oxford University Press; 존 로크 저. 추영현 역. 2011. 『인간지성론』. 서울: 동서문화사.
- Lukes, Steven. 1974. *Power: A Radical View*, London: Manmillan.
- Rawls, John. 1993. *Political Liberalism*.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존 롤즈 저. 장동진 역. 1998. 『정치적 자유주의』. 서울: 동명사.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Beck, Ulrich. Translated by Sung-tae Hong. 2006.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Seoul: Saemulgyul.
- Bentham, Jeremy. 2011. Translated by Jung-sik Ko.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Paju: Nanam.
- Berlin, Isaiah. 2006. Translated by Dong-cheon Park. *Liberty: incorporating four essays on liberty*. Seoul: Acanetbooks.
- Foucault, Michel. Translated by Gyu-hyun Lee. 1990. *Histoire de la sexualite : Tome 1 la volonte de savoir*. Seoul: Nanamm.
- Fromm, Erich. Translated by Seok-hee Kim. 2012. *Escape from freedom*. Seoul: Humanistbooks.
- Heidegger, Martin. Translated by Ki-sung Lee. 1998. *Sein und Zeit*. 1998. Seoul: Kachi.
- Hong, Yun-gi and Jung-won Lee. 1982. *The Theory and Practice of Habermas*. Seoul: Jongrobooks.
- Jung, Dal-hyun. 2007. *The Political Philosophy of Locke*. Kyungsan: Yeungnam University Press.
- Locke, John. Translated by Jin-sung Gong. 2008. *Epistola de tolerantia*. Seoul: Bookworld.
- Locke, John. Translated by Jung-in Kang and Ji-young Moon. 1996. *Two treatises of government : the second treatises of government - an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t, and end of civil-government*. Seoul: Kachi.
- Locke, John. Translated by Kyung-tae Nam. 2012. *Two treatises of government, the second treatise : an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t and end of civil government*. Paju: Hyohyung.
- Mannheim, Karl. Translated by Seok-jin Lim. 1991. *Ideologie und Utopie*. Seoul: Cheonga.
- Meier, Hans and Horst Denzer. Translated by Kwang-sun Joo. 2008. *Klassiker des politischen Denkens*. Seoul: Minumsa.
- Popper, Karl Raimund. Translated by Myung-hyun Lee. 1982.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Seoul: Minumsa.
- Rawls, John. Translated by Kyoung-sik Hwang. 1985. *Theory of Justice*. Seoul: Seokwangsa.
- Rousseau, Jean-Jacques and Thomas Paine. Translated by Ga-Hyung Lee. 1994. *Du contrat social Common sense, and other political writings Rights of man*. Seoul: Eulyoo.
- Sandel, Michael J. Translated by Chang-sin Lee. 2010.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Paju: Gimyoung Publishers.
- Sen, Amartya Kumar. Translated by Sang-ho Lee and Deok-jae Lee.

1999. *Inequality reexamined*. Seoul: Hanulbooks.
- Sen, Amartya Kumar. Translated by Woo-hee Park. 2011. *Development as freedom*. Seoul: Sejonbooks.
- Voltaire. Translated by Gi-Hyung Song and Mi-kyung Lim. 2001. *Traite sur la tolerance*. Seoul: H
- Von Hayek, Friedrich August. Translated by I-seok Kim. 2006. *The road to serfdom*. Seoul: Nanam.